

F1 수입 고작 180억

목표액의 4분의 1 '홍행 참패'… 내년 예산 확보 비상

우려했던 '적자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올해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이 180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애초 목표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F1 대회를 통해 거둔 수입이 180억원 수준이라는 사실을 박준영 전남지사로부터 전해들었다"면서 "행정사무감사와 F1 행정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각종 부실 운영 사례 등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 고 말했다.

F1 대회운영법인인 KAVO와의 세부 예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대회 매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 정도 성적표라면 참담한 수준이다.

특히 전남도와 KAVO가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자체 예상수입 742억 원 가운데 입장권 판매수입을 564억 원으로 잡은 것에 비하면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다. 입장권 수입 외에 스폰서 수입과 기업부스(SKY BOX) 판매 수입도 애초 목표인 58억원과 89억원에 근접하기는 커녕 꽉차기 도 부끄러운 '초라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홍행 참패'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남도와 KAVO가 올해 수익을 바탕으로 내년 대회 경비를 일정부분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가뜩이나 경주장 건설 지원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1025억이나 늘어났지만 경주장 건설이 마무리돼 대회까지 치른 만큼 경주장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당장 전남도는 내년 대회 개최를 위해 400억원의 개최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 F1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200억원)·광고마케팅비(200억원)·F1대회장운영비(280억원) 등 680억원도 필요하다.

전남도가 내년 본 예산에 출연금과 운영비 300억원을 반영하고 F1 경주장 추가 공사비 중 일부(275억원)도 부담하기로 했지만 나머지는 KAVO의 다른 출자사들이 충당해야 한다.

그나마 이들이 추가 출연을 주저할 경우 전남도가 부담해야 할 끓은 커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데도 전남도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내년 살림살이 5조2344억

전남도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추가 건설비 275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본 예산안 5조2344억원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5조2046억원)에 비해 298억원(0.6%)이 증가한 것이다.

내년 일반회계는 올해 4조4340억원보다 773억원(1.7%)이 증가한 4조

51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7706억원)보다 475억원(6.2%)이 감소한 7231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늘어나면서 올해 11.7%에서 13.5%로 증가했다.

내년도 주요 예산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250억원 ▲관광 및 문화·예술·체육 진흥 분야 3818억원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 9528억 원 ▲도민복지 및 건강증진, 환경 분야 1조4805억원 ▲SOC 확충 등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 8684억원 ▲일반공공행정 등 7028억원 등이다.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190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55억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729억원 등이 반영됐다.

관광 및 문화예술체육진흥 분야의 경우 F1경주장 건설 추가 공사비 275억원, F1 조직위 출연금 300억원,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58억원, 관광지 개발 120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480억원 등이 포함됐고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는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576억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50억원, 전일염업전장관 개선사업 35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외 보건복지분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생계급여 등) 2천265억원, 기초노령연금 2650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265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08억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1천242억원 등이다. SOC 확충 등 건설교통 분야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710억원, 나주역·빛가람도시 간 도로개설공사 337억원, 지방도 정비 834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日만정

- 김종우



왜 우리에겐 인색하지?

남부대학교대학원
전기석·박사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석사	기계공학과/ 디지털경영정보학과/ 항정미용학과/ 한방제약개발학과/ 사회복지학과/ 음악학과/ 스포츠과학과
박사	기계공학과/ 디지털경영정보학과/ 항정미용학과/ 사회복지학과/ 대체의학과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행정전공/ 유아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영양교육전공 미용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 학부의 전공과 지원하는 본 대학원의 전공이 동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음
(단,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미용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중등학교 청교사2급 취득(관련학부 졸업자에 한함)

* 영양교육전공 영양사2급 취득(영양사면허증 취득자에 한함)

* 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2급 청교사2급 취득(현직교원에 한함)

[보건경영대학원]

석사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대체의학과/ 물리치료학과/ 언어치료학 각학과/언어치료, 청각/ 컨설팅학과/ 의공학과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0년 11월 1일(월) ~ 11월 19(금)

* 면접전형 : 2010년 11월 26(금)

[대학원 입학상담]

▶ 대학원교학실 : 062)970-0046~7 FAX : 062)970-0044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4-1 남부대학교 대학원교학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http://graduate.nambu.ac.kr>)

2011학년도 남부대학교 정시모집

입학정보처

원서접수 2010년 12월 18일 ~ 24일 062)970-0114

새롬행정고시학원 · 광주점 361-8111
전대점 268-8111

부동산중개실무특강!

전병식교수·전병성교수 특별초빙

※ 이런 분은 꼭 들어 보세요!

- ① 중개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개업장소 및 전문중개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 ② 부동산 관련 취업을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 없는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 ③ 중개업무에 자신감을 상실했던 현업 부동산 중개업 CEO
- ④ 개업을 하였으나 마케팅기법이 부족하여 수익률 못 올리는 현업 부동산 중개업 CEO
- 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동안 중개사고 없이 중개업을 하실 분
- ⑥ 고객의 마음을 읽고 최면을 걸어 계약서를 쓸 공인중개사
- ⑦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분
- ⑧ 월 생활비가 필요한 청년 및 노후에 수익성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
- ⑨ 보유부동산에 대한 권리·개발·수익창출·각종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
- ⑩ 비로 이번 교육을 받고 '부동산중개업을 10년 했다'는 강력한 자부심을 필요로 하는 공인중개사

개강 11月12日(금요일)

오후 2시 ~ 6시 (8주완성)

www.gjs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서구청 앞 광주은행2층 361-8111

생각보다 좋은 비누 명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 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 주요성분**

- 특수 숙성한 식물성 유지
- 실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낸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맷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발 맷사지 후 사용

◆ 광주·전남·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뺏지는데 거기에다 품위와 뛰어난 청량 거리는 멋진 걸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깊숙히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섬세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세시화나 꽃인지 생시인지 햇길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범죄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폭발로 불리가 난다.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기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자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1100-3108-08 안향연

사이 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생노방사 불노장생 쟁을 드립니다